

韓國矣故宮

-The Korean Ancient Pa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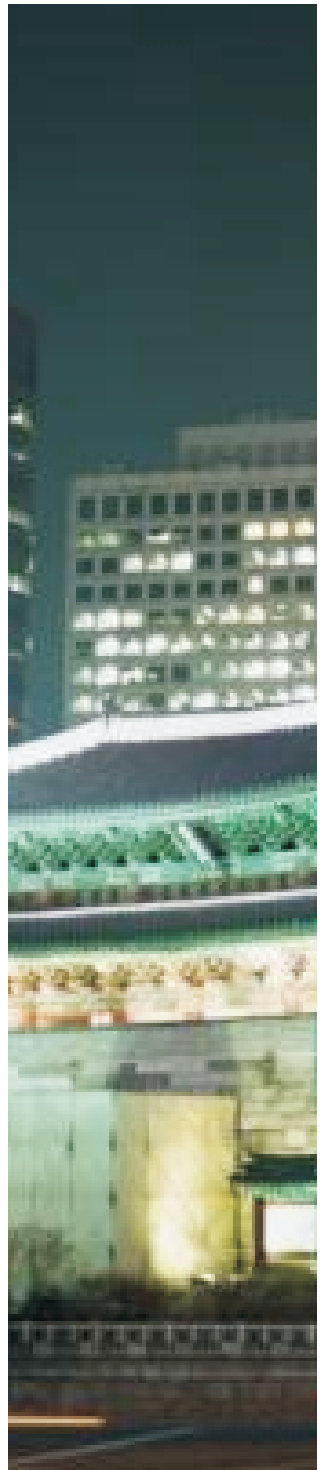
韓國矣故宮

한국의 고궁

-The Korean Ancient Palace-

출저

게티이미지 www.gettyimages.com
김재일. 1997. 조선왕조의 빛과그늘 우리의 고궁 서울; 한림 미디어



copyright © 2007 by gettyimages

宮

궁(宮)은 궁(穹)이다.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사는 집이다.-

궁궐(宮闕), 궁전(宮殿), 궁실(宮室), 궁가(宮家)

궁이 왕과 신하와 함께 정무를 보고 거처하는 곳이라면, 궐이란 그 궁을 지키는 궁성과 성루와 성문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궐, 궁위, 금궐, 궁금, 궁정 따위도 같은 말이다.

궁궐은 '궁+궐'이다.

궁전은 궁궐안에 있는 전각을 의미한다. 왕이 사용하는 사적 공적인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궁침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궁침이란 '궁+전 = 궁+침'의 뜻이다.

궁실이란 궁전가운데서 왕의 사적인 공간을 뜻한다. 좁은 뜻으로는 사적인 건물의 방을 뜻하기도 한다. '궁+실'이 아니라 '궁>실'을 뜻을 지닌다.

궁가란 궁전과 같은 말이긴 하지만, 궁이 구분하자면 왕이 아닌 왕족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뜻한다. '궁전 > 궁가'인 것이다.



인정전
왕이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펴는 곳이다.

마당에는 다른 정전들과 마
찬가지로 품계석이 있고,
지붕의 양성에는 대한제국
의 상징인 이화문장이 있

대조전
희정당 북쪽에 자리하
고 있는 황후의 침전.

왕을 제외한 철저한 금남
의 공간이며, 상궁과 나인
궁녀들 만이 드나들 수 있
었다.



昌德宮

- 백성을 위해 덕을 쌓으라 -

1405년 태종이 개성에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올 때 이궁으로 지은 궁궐이다.

한때 정궁인 경복궁 동쪽에 있다 하여 동궐로 불려 졌다. 당시 박자청이라는 내시 출신의 무관이 공사의 총 감독을 맡았고 윤신달과 이양달이 풍수를 맡았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이 대원군에 의해 중건될때 까지 약 270년 동안 조선후기의 정궁이 된 궁이다.

백성을 위해 덕을 쌓으라는 궁의 이름과는 달리 창덕궁은 사육신의 참형, 연산군의 살육, 인조반정, 장희빈의 비운, 사도세자의 죽음, 임오군란, 갑신정변 등상처깊은 왕조의 비극사를 안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도 1910년 8월 22일 바로 이 궁의 대조전에서 열린 마지막 어전회의로 막을 내린다.

창덕궁은 서울의 5대 고궁 가운데 가장 넓고 인정전과 그 주위의 화랑을 비롯하여 대조전과 낙선재 등 모두 41동의 전각들과 후원이 남아있다.

전각 배치를 보면 경복궁이 직선적이고 남성적인데 비해 창덕궁은 곡선적이고 여성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창덕궁 앞은 자리가 자연 지세를 이용하다보니 전각들을 바둑판처럼 질서 정연하게 배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분방한 창덕궁의 전각과 후원 배치에서 우리는 창덕궁의 절묘한 동선을 찾아 볼 수 있고 이런 자연생태적인 전각의 배치는 은밀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래서 전궁인 경복궁보다 더 구중심처임을 느끼게 한다.



대한문(大漢門)
- 덕수궁 (경운궁)의 정문

현재 경운궁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대문이다.

경운궁 중건 당시에 인화문(仁化門)이라는 본래의 정문이 남쪽에 따로 있었다.



중화전(中和殿)
- 고종황제만이 이용했던 경운궁의 정전

고궁 정전으로서는 가장 작은 규모이다.

증층이었던 전각이 1904년 불탄 후 단층으로 낮아졌다.

계단앞에 서수와 앞마당에 뜰계석이 있다.

덕수궁(慶雲宮)
- 덕수궁이 아니라 경운궁입니다.

덕수궁이란 명칭은 선왕이 머무는 곳이라는 일반 명사.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으나 임진왜란으로 모든 왕궁이 불타버려서 궁이 되었다.

德壽宮

선왕이 머무는 곳



창경궁(昌慶宮)
- 놀이터로 전락했던 비운의 궁

성종 14년(1483) 홀로된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 덕종의 비인 소혜왕후, 예조의 계비인 안순황후 등 왕실의 모후를 모시기 위해 세운 궁.

이른바 과부들의 궁.



명정전(明政殿)
- 창경궁의 정전

소규모의 단아한 단층 건물로 소탈한 맛이 친근감을 준다.

정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왕대비가 거처하는 이궁(離宮)이었기 때문 정전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다.

景福宮

- 만년토록 복된 왕국 -

태조 4년에 창건된 조선왕조의 정궁.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궐이라고도 하였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정도전이 <시경> 대아편에 나오는 '우리 임금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소서'에서 따왔다. 그러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권력을 둘러싼 왕자끼리의 골육상쟁이 벌어 자는 등 창건초기부터 말썽이 많았다.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이 궁을 버리고 개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바람에 이 궁은 근정전 앞에 까지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로 방치 되다가 7년 뒤에야 태종이 된 이방원이 돌아와 주인을 맞았다.

그러나 경복궁은 이후에도 '만년토록 복된' 왕국이 되지는 못했다.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 없어지는 비운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복궁의 소실은 왜군들의 방화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난을 당해 야반도주한 무능한 임금과 조정을 원망한 백성들이 불을 질렀다고 한다. 그후 경복궁은 불길하다는 이유로 273년 간이나 중건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한 말에 이르러 흥선대원군이 왕권 회복의 일환으로 경복궁을 공들여 복원하여 아들 고종을 들여 보냈다. 그러나 고종 32년(1895) 명성황후 민씨가 일본인들에게 시해 당하고, 이듬해 2월 고종이 궁을 버리고 경운궁(덕수궁) 옆 러시아공관으로 파천하게 되면서 경복궁은 왕궁으로서의 운명을 비극적으로 끝마치게 된다.



홍례문

경복궁에 있는 3개의 문 가운데 중문(中門).
창건된 것은 1395년 으로, 원래 이름은 '예(禮)를 널리
편다'는 뜻의 홍례문(弘禮門)이다.



향원정

침전공간뒤에 마련된 큰 연못
후원공간.

경복궁 창건당시
없었던 것을 중수
때 처음 지은것이
다.

전체적인 분위기
는 아늑해서 여성
적이다.

현재의 향원정 건
물은 명성황후 민
씨의 침전이었던
곤영각의 취영루
를 옮겨온 것이다.

향원정은 우리나라
에서 처음으로
전등이 켜진 곳이
다. 1887년 봄 미
국 에디슨 전기회
사가 1백촉짜리
전등 2개를 켜다.



근정전

국보 제 32호
로 경복궁의 정
전.

백성을 부지런
히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중종등이
이 정전에서 즉
위하였다.

근정전의 구역
은 네모난 행각
으로 구분지어
있다.

동쪽행각에는
일화문이있고,
서쪽에는 월화문
이 있다.
일화문으로는
주로 문반들이
드나들고
월화문에는 주
로 무반들이
드나 들었다.



광화문

광화문은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알려주는 문이라
는 뜻이다.

광화문은 궁궐의 5대 정문 중 유일하게 월문형식을 갖
추고 있으며 유일한 홍예문(무지개꼴 문)이다.

